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언론의 시각

이영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양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1. 머리말

언론은 다양한 사실을 선별하여 보도하는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에 따라 각급 언론기관이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언론기관 특히 신문매체에서 다루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종합일간지와 경제신문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신문기사로 설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원일인 1997년 10월 18일부터 1998년 8월까지로 하였다.

## 2. 기사의 주요내용

언론에서 보도하는 직업교육훈련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직업교육에 대한 보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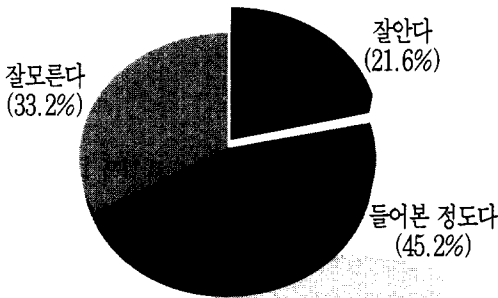
학교교육에서의 직업교육에 관한 내용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5월 15일에 서울공고를 방문한 것을 모든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직업기술교육에 대하여 새로운 투자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직업교육의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에서는 ▲실업고교 열심히 다녀봤자? ▲단순직 저임금에 취업꿈 좌절 ▲실업고교 취업률 허구 등 실업계 고교생들에 대한 대책의 실태를 보도하고 있다(한겨레 1998.7.27). 반면에, 전문대학 교육에 대하여 언론에서 다루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4년제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졸자의 취업 관련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심지어는 '졸업반은 死學年' (조선일보 1998.4.14), '갈곳없는 대졸 캐거루족' (한경 1998.6.5)으로 비유되는 대졸자들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또 대학이 취업률에 따라 학과를 만들고 없애고(국민 1998.6.8), 비인기학과 강좌를 폐강(경향 1998.4.4.)하는 등의 개혁의 움직임들을 소개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학문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시하고 있다.

### 나. 직업훈련의 현황

직업훈련에 관해서는 대학의 사회교육원 강좌에 실직자가 몰리고(서울 1998.2.12), 여성단체 직업교육과 여성취업관련 학원이 붓물을 이루는 실상(서울경제 1998.3.16) 등을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을 비중있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는 직업훈련시장이 IMF 사태 이후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산업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경제 1998.1.13).



### 그림 1 실업대책으로서 재취업교육에 대한 인지도

그러나 직업훈련의 내용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이 양적으로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필요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중앙 1998.8.1)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의 '재취업, 하늘의 별따기인가' 기사에서는 직업훈련을 이수한 후 취업 여부에 대해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릴 뿐 별다른 묘수가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암시하고 있다(한국 1998.8.3). 또한 공공기관의 직업훈련 역시 금년부터 실직자들의 신청이 쇠도하지만 재취업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직업훈련은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2주~3개월의 속성코스가 많은 데다, 생산직 중심의 교육이라 사무직 실직자를 위

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점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각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만든 취업알선 창구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실직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1998.4.7). 한편 한겨레신문은 <그림1>과 같이 실업대책으로서 재취업교육 실시여부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비교적 잘 안다는 의견이 21.6%에 불과한 반면, 들어본 정도가 45.2%, 잘모른다가 33.2%로 나타난 점을 들어 정부의 실질적인 재취업교육 홍보노력을 촉구하였다(한겨레 1998.7.31).

#### 다. 선진국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보도현황

동아일보에서는 선진국의 실직자 재취업 교육을 다루었다. IMF 구제금융 시기를 경험한 영국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직업교육훈련이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기사를 다루었다. 또,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해서는 미국 경영협회의 자료를 인용하여 인력을 감축할 때 전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미국기업의 비율이 '91년 50%에서 '94년 80%로 높아진 예를 소개하며 미국에는 약 21단계에 이르는 정교한 전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고 덧붙이고 있다(동아 1998.5.29).

#### 라. 언론에 보도된 정책대안의 제시

한편 언론은 직업교육훈련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에서 다루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대안에는 실업자 대책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직자의 재취업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노동부가 하반기에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한겨레 1998.7.27). 또 중앙일보는 전문가 9인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이 나아갈 방향 ▲재취직 훈련 확대 ▲수요가 많지 않은 재직자 고용유지 훈련 축소 ▲실업자 훈련 통합 ▲실업자 유형별 세분화 ▲ 직업훈련기관과 직업소개기관의 협조 증대 등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중앙 8월1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언론은 IMF 구제금융의 영향으로 인문계 고교에서 일고 있는 직업반열풍을 보도하면서 이제는 '간판'보다 '실속'을 따질 때라며 국민적 의식개혁을 위한 계몽사업을 벌이고도 있다(서울 1998.3.9).

### 3. 기사의 주요특성

이상과 같이 주요 언론이 보도한 직업교육훈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 가. 직업교육훈련 기사의 빈도 증가

그 동안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에 관한 언론의 관심도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최근 대량 실업사태의 발생과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직업교육훈련은 언론의 큰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언론이 각종 직업교육훈련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1>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주요 일간지 보도동향을 월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그 결과를 보면 기사의 빈도가 1998년 2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첫째, IMF 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을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새정부의 국정운영방안으로 직업교육훈련이 강조된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각급 학교의 졸업시기에 맞추어 졸업생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표 1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일간지 보도동향

(단위:건)

해당 연·월	직업교육	직업훈련	합계
1997. 11	14	19	33
1997. 12	22	61	83
1998. 1	18	80	98
1998. 2	20	118	138
1998. 3	18	100	118
1998. 4	13	70	83
1998. 5	16	47	63
1998. 6	8	52	60
1998. 7	5	45	50
합 계	134(18.5%)	592(81.5%)	72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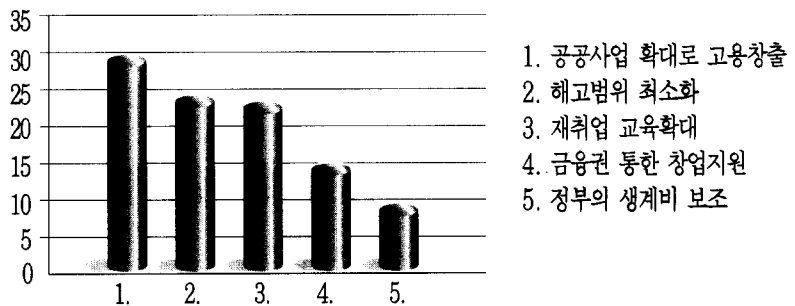
기사의 성격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직업훈련 관련기사가 약 8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직업교육보다 시급한 실업자 대책으로 단기적인 직업훈련분야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나. 실업률 증가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의 증대

최근 우리의 직업환경은 IMF 구제금융체제의 실시와 대량실업 사태로 인한 총체적 어려움 속에서 큰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하여 언론은 실업 문제의 해결책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직업교육훈련 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업 문제의 해결책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업 문제의 해결책과 관련하여, 1998년 8월 24일자 동아일보는 정부의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재취업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사회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업자 문제 대한 우선 추진사항 여론조사 결과

#### 다.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기사내용의 특성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1) 기관에 대한 소개

각종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소개가 증대된 것으로 여성 재취업 과정을 실시하

는 대학에 대한 소개(한국경제 1998. 7. 1)와 '일하는 여성의 집'에 대한 소개(조선일보 1998. 5. 11. 외 5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 2) 고정 취업란 할애

일부 신문사에서 신설하고 있는 정기적인 고용과 취업란을 들 수 있다. 조선일보와 서울경제신문사의 월요일자 취업면, 매일경제신문과 세계일보의 취업면, 한겨레신문의 기획연재 '실업극복,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등이 최근 신설되어 고용 및 취업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 3)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 제시와 중요성 강조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사와 재취업교육훈련에 대한 강조를 다루는 기사가 증가하였다.

## 4. 맺음말

이제 우리 나라도 본격적인 직업교육훈련시대를 맞고 있다. 언론에서도 현 경제위기 타개와 산업구조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여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 신문에서는 주 2회에 걸쳐 고정란을 운영하며 직업교육훈련을 다루는가 하면, 직업교육훈련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룬 책자를 발간·배부하는 등의 실천의지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언론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다소 획일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직업능력을 향상·개발하고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전인차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